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용하는 두 가지 영향력,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성령님의 도우심이며, 다른 하나는, 그 반대편에(대척점에)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용(作用), 반작용을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이 대적의 존재에 대한 주의(注意)를 환기(換氣)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그 대적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칭(指稱)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한 것일 수도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이 성화(聖化)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內住)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引導)하시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과 행위들을 소멸, 죽기시고(사살), 정화(淨化)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證言)하시고, 성령의 과실(果實)을 맺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懇求)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성령님의 행위들의 목표(目標)는, 성도들을 예수님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네 가지 수사적질문(修辭的疑問)들을 던집니다.(누가 oo 하리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마귀의 4가지 전략을 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귀에 전략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수작(醜陋)전쟁을 걸어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폐퇴(廢頽)시킬 수 있는지요?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I. 마귀 사탄의 1번째 계략은, 우리를 대적(對敵)하는 것입니다. (31-32)

첫 번째 질문은 31절에 나오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대적자(對敵者)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20절을 읽어보면 ‘영적전쟁(靈的戰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개인이 싸우는 싸움도 있겠지만, 함께 싸우는 싸움. 군대(軍隊)가 군진(軍陣)을 이루는 싸움으로 묘사를 합니다. 싸움의 스케일은 큅니다. “우리의 싸움(전쟁)은, 혈(血)과 육(肉)(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6:12)

이 싸움의 스케일이 한 ‘인간들’은 상대도 되지 않는, 이 땅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이 합세하여 별이는 싸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자들입니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9절에서 “너희 대적(對敵) 마귀(魔鬼)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언급함으로,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도전이 장난이 아니다>는 언급을 합니다. 배고픈 사자입니다. 표호하는 사자(like a roaring lion)입니다.

지금의 이 세계는, 이런 대적자들로 충만(充滿)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적그리스가 지배하는 세계와 같습니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괴상한 사람들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자신이 신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신론자, 반신론자, 회의론자들은 더욱 늘어납니다. 소위 PC(political Correctness)를 지향하는 것이 깨어있음(wokeness)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낡은 윤리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불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에도 빠리를 틀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이게 빠짐) 증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엡 2:2-3)

보이죠. 이 소용돌이... 이 세상 풍조(유행)를 따르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공중권세잡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고 그 사탄의 악영(惡靈)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사실은, 우리도 바로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활동과 함께, 하나님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 이제 우리의 본문 31,32절을 읽어봅시다.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니, 대적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시고, 말뿐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력(強力)하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귀가 강해도 그 카운트파트너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누구와도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와 잘 지내기를 원해선 안 됩니다. 저들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압도(壓倒)하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제 마귀사탄, 우리의 대적자들이 하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II. 마귀 사탄의 2번째 계략은, 우리를 고발(告發)하는 것입니다. (33절)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것이 대적에 이어 마귀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32~33에서 말하는 ‘고발’(고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ἐγκαλέω (enkaleo) ‘법정에 고소하다’, ‘범죄 사실을 지적해 책임을 묻는다’는 말로서, 신약시대 그리스-로마 실제 법정에서, 누군가의 죄(위법행위)를 공식적으로 고발한다는 원어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1-4에서 한 예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對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죄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이유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악된 상태,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함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지적하며 “고발자”, “참소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결에 섰더라.”

* 우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3절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9)

III. 마귀 사탄의 3번째 계략은, 우리를 정죄(定罪)하는 것입니다. (34절)

33절의 후반부는 34절에 붙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 우리의 죄를 찾아 정죄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분과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1)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2) 붙잡아야 할 내용 : 우리를 의롭다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福音)과 삼위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1-2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解放)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1:4-5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1:18-21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것은 가끔 마귀와 함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상급 작전 고도(高度)의 전략(前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성경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자신을 정죄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IV. 마귀의 최후 계략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의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35-37절)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主)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힘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마귀사탄의 최후(最後) 전략으로 우리를 흔드는 작전(作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환경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조건을 35절에서, 7가지로 진술합니다.

<환난>이나 <곤고(困苦)>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King James Bible)

* 곤고(困苦)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고민, 걱정, 고통, 재난, 불행. 등등

* 적신(赤身)은 nakedness 즉, 옷이 없어 헐벗은 상태. 경제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환란, 곤고, 박해, 기근에 이어 가난의 상태에까지도 이른다면 최악이겠습니다.

* '칼'에 해당하는 헬라어 μάχαιρα는 로마 시대 군인들이 사용한 단검·전투 칼을 주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한 죽음, 위협, 순교등 생명의 위협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자학적 의심과 염려가 밀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의 속삭임이 정확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하느님이 네 편이겠느냐>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종)이면 이렇게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처음에 마귀는 우리의 행동을 걸고 넘어지며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제로 우리를 걸고 넘어트리려 합니다. <하느님이 너 같은 것을 사랑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主)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3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30절에서, “형제들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천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기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겨질 수 없다고 선언(宣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이 선언을 하기 직전에, 구약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主)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힘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박해와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여, 초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겪는 현실을 성경적 전통과 연결시킴으로써,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맺음 : 우리는 로마서 8장이, 감미로운 이야기만 하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협동사역을 말하면서, 달콤한 미래(未來)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진실하고 실제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하나님이 우리의 성화(聖化)를 위해 끝없이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악령인 마귀사탄이 우리를 향해, 방해와 파괴공작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적(對敵)하고, 고발(告發)하고, 정죄(定罪)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疑心)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치고 들어와, 착각(錯覺)을 하게 만들어, 정서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의 신앙적 자유와 기쁨을 상실하고 끝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영적존재라 할지라도 이 일을 감히 행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가 사탄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니 매순간, 우리는 마귀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났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의심하며, 염려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때론 고민하고 후회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 나의 정욕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본문의 교훈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에덴동산의 아득한 생활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간계로 에덴이 파괴된 창세기의 역사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날마다의 삶이 천국(天國)이 아니라 지옥(地獄)이 되기를 바라는 사탄의 간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전투적인 삶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 헌신과 결단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전쟁의 승리를 승리(勝利)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쉬운 것이 아니겠는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에겐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삽시다. 기억합시다. 그가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대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삽시다. 나를 위해 내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정화하시고, 증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의 대화와 교제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기도 : 주님 우리에게 삼위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 두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자(對敵者)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깨어있게 하는 도구(道具)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저들의 궤계(詭計)를 물리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영적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